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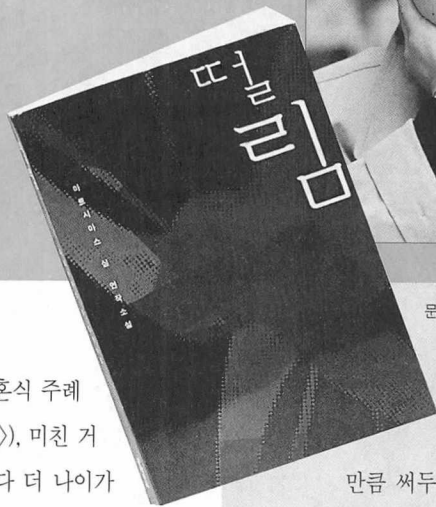
## 인간의 불완전성 넘어서는 성애의 미학

《떨림》 펴낸 소설가 마르시아스 심씨

우리에게 성애는 여전히 미덕보다는 악덕에 가깝다. 풍속의 교정자들에게 성애는 억압해야 할 불온한 패륜이다. 하지만 성애만큼 인간의 생래적 진실에 가까운 것도 드물다. 마르시아스 심씨의 연작소설 《떨림》은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서기 위한 전략으로 성애에 주목한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성애 편력은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정이다.



마르시아스 심씨



문학동네/A5신/294면/7500원

“먼 옛날 내가 아주 젊고 자유로웠을 때, 나는 장차 소설가가 되기를 꿈꾸면서, 그래서 언젠가 소설가가 된다면 무엇보다 우선 내가 사랑했던 여자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리라 작심했었다.”(《딸기》)

이제 소설가가 된 마르시아스 심씨(40, 본명 심상대)가 연작소설 《떨림》(문학동네)을 펴내 드디어 그 ‘작심’이 공수표가 아니었음을 공표했다. 《목호를 아는가》(민음사), 《사랑과 인생에 관한 여섯편의 소설》(명경), 《늑대와 인터뷰》(술)에 이은 네번째 소설집이다.

### 성애는 인간의 유한성 극복하는 통로

군더더기 없는 문체와 감칠맛 나는 묘사력으로 주목받아온 심씨가 이번 소설집에서 던진 화두는 성애다. 《딸기》부터 《발찌》에 이르기까지 8편의 작품에는 성애의 묘사가 위험수위에 육박할 정도로 위태롭다. ‘풍속의 검열관들’이 채제를 부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몰랐을까.

“노만 밀리는 20세기가 될 때까지 소설이 버려둔 유일한 주제가 섹스라고 말합니다. 소설이야말로 인간의 내면을 탐색하는 예술이죠. 비록 도덕과 윤리가 장애물이 될지라도 결코 이를 방지해서는 안됩니다. 인간존재의 불완전성과 유한성을 극복하는 통로 가운데 하나가 성이죠.”

연작소설 전체의 화자는 소설가 지망생이었다가 나중에 소설가가 된 ‘나’다. 주인공의 여성 편력은 거침이 없다. ‘나’는 양장점에서 잔심부름하는 시로도 자매(《딸기》), 늙은 창녀와 하숙

집 여주인(《샌드위치》), 결혼식 주례를 맡기로 한 처녀(《나팔꽃》), 미친 거지 여자(《우산》), 어머니보다 더 나이가 든 예순넷의 여인(《베개》) 등과 사랑을 나눈다.

이 작품집을 어느 호색한의 난잡한(때로는 변태적인) 성 체험기로 읽는다면, 이는 오독이다. 오히려 “내게 생의 가치와 희열의 정점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인간, 하나의 존재에 대한 그 큰 의미를 자각케” 한 여인들과의 사랑과 인간 존재의 숙명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 소설의 참 주제다.

“연애와 사랑은 가혹한 인간실존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성애에서 쾌락을 얻기도 하지만 유전자들 후대에 물려줌으로써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또한 거기서 생의 에너지와 상상력이 솟아나죠.”

심씨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마치 ‘학기말 시험 치러드’ 성담론서 100여권을 독파했다. 저속한 일본의 포르노그래피 소설부터 철학자들의 성애론까지 망라했다. 일본의 통속소설에서 꿈꾸는 성애묘사를 한수 배웠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성애에 대해 한번 맘껏 윤택하게 써봤다.”

### 혼돈의 시대 묘파하기 위한 파격적 형식

이번 소설집은 형식도 파격적이다. 수미일관한 서사구조를 깨고 곳곳에 회상과 회상이 중첩되거나 중간중간에 소설가의 자의식이 끼어든다. 사랑하던 여인이 타고 떠난 비행기를 바라보는

장면이 끝날 무렵 “글을 마무리하기 전, 이만큼 써두고서 며칠 동안 술을 마셨다”고 소설가의 목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식이다.

“기승전결의 구조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혼돈과 부조화, 그리고 미완성으로 가득 찬 시대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형식마저 변해야죠. 소설가가 개입하는 형식은 창작자의 생리에 잘 맞습니다. 허구와 진실의 경계선을 허물기 위해 ‘가상의 타인’을 내세운 거죠. 이제는 쾌락의 주체가 바로 ‘나’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의 떨림’으로 성애의 미학을 성취한 작가는 이제 질퍽한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성애로도 인간은 존재의 불완전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란다. 요즘 그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주제는 유머다. 유머는 죽음과 성애, 그리고 슬픔에 등을 붙이고 있으면서도 생을 지탱해주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내딛든 다음의 말은 ‘작가의 선언문’처럼 들린다.

“슬픔에 지쳐 빠져 울기에도 마땅치 않은 시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멋지고 우람한 구조물 하나를 세우는 거지. 그게 바로 소설이야.”(《발찌》) - 박천홍 기자